

# 전주한지 전통보존 · 세계화 앞당긴다

전주시가 한(韓)문화의 중심축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산업인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세계화 등 한지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지관련 산·학·연·관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전통한지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9월 발표된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최종 마스터플랜(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전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주한지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 마스터플랜에 담긴 우선순위 사업목록(22개 분야)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전주한지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 시, '전주전통한지 발전방안 대토론회' 개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담은 전주한지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전주한지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나무의 생산량 감소 △전통한지 제조방식의 변화 △문화재 보존·보수용지의 생산량 저조 △국가 지정 및 도지정 한지장인의 부재 등으로 진단했다.

또한 4조8000억 원 내의 고부가가치로 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화지산업의 사례 등 일본 미노시, 에치젠시, 고치현의 종이산업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지생산자인 전주·원동·인동의 국내의 사례를 각각 비교 분석해 소개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전주한지의 비전을 '전통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보장의 핵심성 있는 한지(K-Paper) 문화산업 도시 고도 조성'으로 잡고, 전주를 한지문화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5대 핵심요소(5 Ps)를 △인간(People) △환

경(Planet) △번영(Prosperity) △수익(Profit)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정했다.

특히 5대 핵심요소를 다시 '전통계승 로드맵(장인형 기업)'과 '산업화로드맵(개척자형 기업)'으로 나눠 △한지장인 지정 △전통한지 제조기반 조성 △다인프라 구축 △한지산업진흥법제화 등 22대 중점 전략 분야를 도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지제조분야의 강진대 명예교수·류정통 강원대 교수·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유통·마케팅 분야의 신준섭 용인송담대 교수·김은미 전북대 교수, 디자인 분야의 최은희 백석대 교수·진효승 (주)디자인하우스 디자인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회도 진행됐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과, 22개 분야 우선순위 사업목록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전주한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하는 등 전주한지의 전통보존과 관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또, 2학기 전주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를 한지로 시범 제작해 배포하고, 전주한지장의 발굴에 나서는 등 전주한지의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보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임현아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이번 대토론회에 나온 자유로운 의견들을 종합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전주전통한지 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 세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주전통한지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그리고 전주전통한지의 문화적 자산이 갖는 가치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들을 도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푸드, 수도권 첫 진출

## 시, 수원시와 제휴푸드 업무협약 체결 수원 광고산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급

전주지역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수도권에도 공급된다.

전주시는 최근 수원시 광고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전주시·수원시 제휴푸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일부터 수원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전주푸드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주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의 안정된 판로개척과 소득 증대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전주시와 수원시 간 체결한 자매결연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농업기반이 취약한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시민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에 협력을 요청해 온 데 따라 성사됐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수원로컬푸드센터와 협의해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제철 과일과 파프리카, 미나리, 풍나물, 두부 등 부족품목을 주 2회 정기적으로 공급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국 최초의 대도시 먹거리전략인 '전주푸드2025플랜'을 통해 현재 전주푸드 직매장 3개소와

슬로푸드레스토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17억5000만원, 누적 이용객 10만5000명, 조직화 농가 1002농가가 1005품목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는 이날 중 전주푸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으로,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되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임야의 밥상 등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120만 수원시민의 먹거리문제 해결은 타 지역과의 연계협력에 필수적이다. 전주푸드가 그 기회를 선점한 것"이라며 "먹거리 공급뿐 아니라 양 도시가 도시먹거리전략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면으로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전주푸드 플래너 이정표로 삼아 농민과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수원먹거리체계 구축에 착수, 첫 번째 결실로 장안구 상광공동에 위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오는 11일 개장하는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은 30여종의 예산을 들여 부지 1186㎡에 연면적 916㎡,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개설했다.

/김영재 기자

# 외제차량 불법개조, 새만금도로 질주한 폭주족 검거

외제차를 불법 개조해 새만금방조제에서 폭주 레이싱을 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주말 심야시간 때마다 상습적으로 슈퍼카와 불법 개조 차량을 통해 최고 350km/h의 속도를 내며 폭주 레이싱을 한 6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김씨 등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군산시 육도면 새만금 방조제 너울섬터에서 소리굽터까지 편도 2차로 직선구간을 람보르기니와 닛산 GT-R, 폭스바겐, 제네시스 쿼제 차량을 이용해 불법 레이싱을 20회 이상 즐겼다.

김씨 등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께 이 구간에 모여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2시까지 불법 레이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구간에 해당 시간 대 차량소동이 적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자행했다.

이들은 서행을 하다가 일정 지점에서 최고 속도를 내 승부를 겨루는 롤링 레이싱과 정지 상태에서 신호를 해 주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발진을 해 최고 속도로 승부를 가리는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주말 심야시간 때마다 상습적으로 슈퍼카와 불법 개조 차량을 통해 최고 350km/h의 속도를 내며 폭주 레이싱을 한 6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형사 입건했다.

드래그 레이싱을 주로 했다.

경찰은 2015년 2월14일 오후 11시9분께 진로 변경을 하던 투싼 차량을 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K5차량 사건과 2015년 9월27일 오전 1시25분께 야간 뉘시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인피니티

차량 사고도 불법 레이싱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불법 레이싱을 벌였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며 "폭주 레이싱은 과속 운전 등

으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위험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레이싱을 한 64명과 함께 불법 외제차 제조업자 4명과 불법 개조된 차량 3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청년리더사업단

###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 200만원 기탁

전주청년리더사업단(회장 한명욱)은 9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실에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전주청년리더사업단은 전주시 청소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주시 청년사업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명욱 전주청년리더사업단 회장은 "전주시에서 폐지수거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후원자를 발굴한다는 내용을 전주시 시정소식지를 통해 알게 됐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것은 젊은 청년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 골목 돌아다니며 수레에 폐지를 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돕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회원들과 뜻을 모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을 돕기 위한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을 통해 올해 16명의 어르신들에게 여러 기관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매달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50명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230명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후 야광조끼 및 모자를 지급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희망줍는 손수레' 사업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빈집서 현금 훔친 50대 검거

전주경찰청에서는 7일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전씨(51, 남)를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9월 19일 덕진구 건산로 소재의 단독주택에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놓아둔 여성용 가방에서 현금 335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